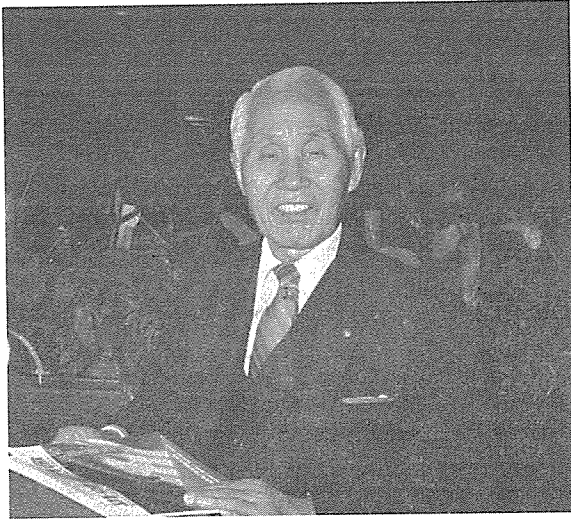


“唯一한 遺産은 사랑, 財産은 사회봉사에 바쳐”



秋空 吳 楨 洙 선생 (1899~1988)

秋空 吳楨洙선생의 부모에 접하여 문득 고독감이 깊어감을 느낀다. 90생애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니, 故人으로서는 무슨 아쉬움이 있으랴마는 나는 오랜 선배를 잃은 아픔보다는 우리 사회의 보기도문 師表가 사라진 것을 슬퍼한다.

선생이 平北 벽지에서 태어나 향상의 뜻을 품고 끝내 고학으로 36세에 세계의 명문 MIT 기계관리공학과를 정규로 -미국서 중·고교를 거쳐서 졸업했으니 이는 보통이 아니었다.

성실, 근면 그리고 봉사정신이 굳게 박혀 있었기에 성취된 것이다.

선생의 修學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報恩·奉仕가 목적이기에, 곧 귀국하여 敎育과 實業에 몸을 던졌고, 늘 독립운동에 정성을 기울여 옥고도 사양치 않았으니 그 유순한 외모속에는 강철같은 정의감이 자리잡고 있

음을 알수 있다.

8·15해방이 되자 선생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국가건설에 바치고자 결심하고 지위고하에 구애됨이 없이 軍政중에 京畿道商工課에 들어 갔으나 보석은 진흙속에서도 빛나, 줄지에 軍政廳 商務部長으로 발탁되었다.

그후 대한민국 수립에 이르는 4년간 실로 우리 商工분야를 지켰다. 이 시기의 공적은 오늘날까지도 마땅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국초 우리 정부가 이 시기의 사실을 인식하게 다루는 습성이 있었으나, 사실 이 혼돈기에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상공계는 싹발이 되었을 것이며 오늘날의 융성도 크게 늦어졌을 것이다.

건국이 되자 그는 貿易의 선각자로서 韓國貿易振興株式會社를 창설하고 韓國貿易協會를 영도하는등 숭선수범하였다.

그후 무역은 우리 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금일 세계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그의 회사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두어칸 셋방에서 두어 사람 사무원으로 창설시와 거의 다름없이 고요하게,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示範 振興이 그 목적이니 그 사명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하겠다.

4·19이후에 그는 상공부·체신부등 3차레나 長官에 취임하였다. 친구들은 혹 그가 성큼성큼 오직에 나가는 것을 위태롭게 여겼으나 그는 조금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지극히 소심, 겸손한 성격이어서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늘 소명감에 젖어 있어 온갖 정성을 다하여 奉公에 주저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되게 살아왔다.

과연 그후에도 科學振興, 貿易등 여러 단체에 대한 봉사, 과학기술 장학재단의 설립, 과학기술전문도서관의 기증등, 또 자서전적인 「정상을 향하여」를 펴낸 것까지도 그가 건장하고 돈이 많고 명예심이 커서가 아니라, 실은 老耄에 行步도 여의치 못하고 사는 집도 옮기지 못하면서 봉사로 평생을 시종한 事蹟을 나는 선생외에 다른데서 내 눈으로 본 바가 없다.

아마 그의 가족에 대한 정성과 애정도 그러하리라 여긴다.

그는 가족에게 재물이 아니라 사랑을 유산으로 남겼을 줄 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그를 잃었으나, 여기 삼가 명복을 빌면서 그의 고상한 행적을 기리 간직하여 앞날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安 東 赫
(學術院元老會員)